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Primary Study of Developing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in Low Income Families*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김 영 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 운 주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박 경 옥
조교수 이 희 숙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김 창 기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Yeong Hee

Dept. of Food &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Woon Ju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 Park, Kyoung Ok
Assistant Professor : Lee, Hee Sook

Chungbuk Council on Social Welfare
Director : Kim, Chang G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에 의한 지원임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identify the high-risk & protective factors among environmental contexts surrounding adolescents, and investig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high-risk & protective factors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djustment separately. The present study was the primary research of developing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in low-income families.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176 adolescents drawn from 8 social-welfare institutions in Chungbuk province. The pilot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survey instrument. Data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percentage, Pearson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using SPSS/WIN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1. There was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environmental high-risk and protective factors except an housing environment. The results implies that environmental contexts itself surrounding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can be either high-risk factors or protective factors.
2. The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perceived that stresses from consumer and school environments were high-risk factors among other environmental contexts.
3. The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perceived that resources from friend and school were protective factors among other environmental contexts.
4. The stresses from friend and eat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 factors predicting adolescents' relative psychological adjustment. However, the behavioral adjustment was not predicted by environmental contexts.
5. The resources from school, consumer, and eat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 factors predicting adolescents' relative psychological adjustment. Also, the resources from school, eating behavior, and family were predictors of behavioral adjustment.

This research implies that the findings can b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in low-income famili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공통적인 문제는 경제적 빈곤, 열악한 가정환경,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한 사회통제력의 부족 등이다. 경제적 빈곤은 빈부의 차가 격심해지고, 편모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파생의 속도가 빨라지며 경제적 빈곤으로 파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정환경의 질이 떨어지는데 있다(Huston, McLoyd, & Coll, 1995). 또한 주변환경의 사회적 통제기 부족하여 폭력과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Elliot & Wilson, 1996).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빈곤 청소년에게 있어 욕구불만 및 문화실조 현상

과 함께 부정적인 심리나 행동을 갖게 한다. 빈곤청소년이 갖는 이러한 내면적 비행은 결과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과도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일탈행동이 표출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Sim & Vuchinich, 1996).

최근 저소득 빈곤가정이 입주해 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청소년 중에서 오토바이 절도와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사고, 연쇄적인 절도 행위 및 학원폭력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결연을 맺고 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청소년은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좌절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대부

분이 열악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능력이 떨어져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 중 대부분은 외적인 문제행동을 표출하고 있으며 범법행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학자들이 밝혀낸 비행화 과정을 더욱 뚜렷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 진명희·오익수·김진희(1996) 등이 밝혀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거쳐가는 비행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행 가능한 가정환경 하에서(high-risk family environment) 비행성향이 형성되어(잠재적 비행청소년) 사소한 일탈행위를 하다가 계기가 되는 일 또는 사건을 통해 비행세계를 맞보게 된다(비공식적 비행청소년). 그러나, 이들이 공식적인 비행청소년으로 낙인화 되는 시기는 주로 비행행동으로 인하여 법적인 체계에 제재를 받거나, 학교에서 중퇴를 당하게 되는 때부터이며, 그 이후로 반복적이고 고착적인 비행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는 비행화를 촉진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가정에 있고 청소년 비행화의 최선이자 최대의 예방책은 건전한 가정환경을 형성하는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이 보호시설이나 상담기관에 수용되어 적절한 보호나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문제행동의 감소를 가져오다가 일단 시설을 벗어나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그 가정환경의 악순환으로 인해 또 다시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은 것은 이러한 관점을 더욱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고 부모의 보호능력을 이미 상실한 빈곤청소년들에게 가정의 책임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방적 차원의 접근방법이라기 보다는 “문제아동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다”는 일반론만을 지지하는 사후문제해결방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선진서구의 청소년 보호시설이 재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학자들은(Yoshikawa, 1995; Wagner & Golan, 1996) 청소년들이 복지시설의 환경과 자신이 돌아가는 가정의 환경을 연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선도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청소년 개인에게 역점을 두어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할 수 있게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owditch(1993)는 인간의 문제는 일상생활의 삶에서 발생한다고 역설하면서 청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면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다루려면 자신이 생활의 주체임을 청소년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그러한 주체적식은 청소년이 생활환경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일상생활의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접하는 일상생활 자체가 청소년에게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학자들은 청소년문제를 접근하는데 일탈이나 비행행동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 보다는 청소년이 접하는 일상생활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eidman & Aber, 1999). 이러한 주장은 부모나 주위 환경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빈곤청소년을 접근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해체가정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어 가정교육의 손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빈곤청소년들에게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외부적 차원의 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 사회복지적 차원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Whalen과 Wynn(1995)은 미국의 현존 청소년 프로그램이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개념적 모델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생태학적 접근방식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환경요인을 명확하게 밝혀줄 뿐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선별하여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단위 프로그램들은 외국에서 실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택하고 있고, 개념적 모델의 설정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 일상생활을 관련시키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련된 생활환경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가 전혀 없어 프로그램 내용의 체계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존 단위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실제 생활을 적용한 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청소년과 관련된 생활환경요인을 근접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학적 접근방식의 프로그램 분석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이 두 요인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 두 요인이 각각 청소년들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아 일상생활 훈련 중심의 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1) 저소득층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생활환경 스트레스와 생활환경 자원의 특성을 알아본다.

(2)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환경 스트레스(위험요인)가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다.

(3)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환경 자원(보호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미국의 생태학적 접근방법의 청소년 프로그램

미국은 경제공황을 겪으면서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실행

해 오고 있어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저소득층 청소년에 개입하기 위한 초기 프로그램은 결함모델(deficit model)을 이용하여 특별한 문제행동이나 위험한 행동 자체에 역점을 두어 청소년 문제를 접근하였다. 그러나 행동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일시적 효과는 나타난 반면 지속적 효과가 거의 없고, 청소년들의 현실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며, 가족이 포함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Whalen & Wynn, 1995).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청소년 문제를 상황이나 환경 중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Bronfenbrenner (1978)의 생태학적 접근이론을 개념적 모델로 설정하였다.

Butt, Resnick과 Novick(1998)은 최근 생태학적 접근방식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9개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프로그램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밝혀져 있다. 'I Have Future'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본 고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만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위험한 환경요인을 감소시켜 보호적인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이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청소년이 처해있는 위험환경과 보호요인을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청소년 개인의 자아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사회성교육, 인성교육, 신체에 관련된 건강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족, 학교, 친구, 소비경제, 주거문제를 다루고 있다.

〈표 1〉 미국의 생태학적 접근방식의 청소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초점	대상	목적	주요 프로그램 내용	장점	단점
Big Brothers /Big Sisters (BS): 마이애미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35년의 역사를 가진.	예방	평균가정 청소년	성인의 역할모델 제공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역할 제공	5세 이상의 노인 자원봉사자와 친구관계 형성 프로그램 임신, 알콜, 마약의 위험에 대한 예방교육 자존감향상과 사회적 기술습득 프로그램 비행복으로 벗어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대일의 인간관계 경험을 제공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정신장애, 신체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특별활동/레크레이션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가치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참여하는 청소년의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청소년에게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 주어 청소년의 개별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게 해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어 청소년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Teen Connections (TC): 뉴욕의 브롱스지역에서 1990년에 신설됨.	예방	편부모가족 청소년	위험요소가 많은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을 방지하고자 건강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이 처해있는 위험환경 요인을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약, 알콜, 임신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의사소통, 자존감, 위생, 스트레스관리, 성교육 등의 내용도 포함한 프로그램 심대들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심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이 프로그램은 Letman 대학과 연관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나 인원을 공급해주고 프로그램 내용을 평가하고 개발할 수 있음.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주지 못함.
Bekontin Trocody (BT): 1967년에 마이애미 빈곤지역에서 시작됨	예방	빈곤지역 청소년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리더쉽 형성, 청소년의 사회적, 학업적, 경제적, 공동사회적 일원으로서의 건강한 발달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줌	직업, 리더쉽, 특별활동, 문화적 예술, 학습, 특별 예방 프로그램 마약과 알콜방지 프로그램 Anti-Gang Program: 현재 폭력집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과거에 폭력집단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존감향상, 스트레스 관리, 마약교육, 학습교육, 개별상담, 부모상담과 개인상담을 해 줌 상항과 에이즈교육을 시킴 사업계획이나 미래계획을 통한 돈 사용 교육 가치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이 프로그램은 학교교실과 같은 환경설정을 해주어 전문인들이 공식적인 교과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또한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들은 다시 프로그램에 투입시켜 교육을 담당하게 함. 경제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줌. 사회진리제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가정방문을 해주거나 개인적 치료 해준다.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약함
Oasis Center (Oa): 테네시주의 데이비드 지역에서 1976년에 설립됨	예방 및 치료	도시 빈곤층 청소년	청소년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 성인기 교육 실시	알콜/마약 예방 프로그램 알콜/마약 치료 프로그램 학교교육 프로그램 문제해결 프로그램 성인기 적응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응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상태에서 자립을 도와줌. 전문인들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용적으로 운영함.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
CHINS (Children in Need of Supervision) UP Youth and Family Services: 콜로라도 스프링 지역에서 시작함.	치료	학대 받은 아동 및 청소년 혹은 기술 청소년	위기시 일시적 장소 제공 아동의 복지, 안전, 가족 관계를 원조하여 건강한 발달을 도모함.	알콜/마약 치료 프로그램 개별지도 감각서비스 개인과 집단 상담 수거지역 특별교육 치료 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치료중심 프로그램이 예방에도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범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들이 정찰에 의해 의뢰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에 문제가 있음.

프로그램명	초점	대상	목적	주요 프로그램 내용	장점	단점
Communities in Schools (CIS): 1986년 휴스턴시의 거리 학교에서 시작함	예방 및 치료	학교에 다니는 모든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중퇴 방지 성인기의 직업역할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가지 기본 프로그램: 상담, 학업, 자기강화, 직업의식, 건강, 부모권, 직업기술, 가족생활. 특별 프로그램: 친구중재훈련(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개인기술, 창의적인 예술활동,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운동이나 특별활동), anti-gang 프로그램(폭력집단에 관여할 위험을 방지해주고, 폭력집단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학교내의 다른 학생들이 폭력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 프로그램), 정신건강프로그램(임상적 진단과 그에 따른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기술교육(방과 후에 기술교육). 학교내의 학교제도(교사를 통한 학습지도) 	이 프로그램은 학교내의 학교 프로그램으로(일반 학교내에 CIS사무실이 있음) 학교행정당국이나 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휴스턴시의 행정당국과 깊이 관여하여 관과 민의 조함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임.	학교안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움.
I have a Future (Fu): 1988년에 테네시 주 네슈빌 지역에서 시작됨	예방	10-17세의 도시 빈곤층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을 위협으로부터 방지하는데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을 교육함.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접근도를 높임. 학교를 떠나고, 직업을 발달시키고, 비행률을 낮추는데 관련된 적합한 행동을 증가시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 자신의 미래 혹은 가족과 사회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건설적인 태도를 갖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자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CHARM(Choosing How to Adorn and Refine Myself, for girls)이라고 하고, 남자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MATURE (Mates Adorning Thinking and Using Refined Energies, for Boys)라고 함. 주요 내용은 분단상, 단정한 옷차림, 위생, 자아존중 행동, 학습에 대한 개인교습, 자기영어, 컴퓨터 기술, 직업, 창의적인 움직임과 춤, 운동, 미술, 여행, 갈등해결훈련, 폭력에방출된, 친구상담, 경제교육임. 미래설계교육. 	청소년들의 가치형성 체계를 일상 생활 속에서 차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자신에게 주어질 환경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극복하게 해주고, 미래에 대한 기회와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어 기금문제가 있음.
Garfield Youth Services(GY): 콜로라도 가필드 지역에서 시작됨	예방	농촌지역의 빈곤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책임있고 공헌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들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교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콜/마약 예방과 치료프로그램 문제해결 프로그램 장시간강과 위기전화상담 프로그램 위기사 안전처(주거)제공 간접 예방프로그램 보호관찰 프로그램 테크레이션 프로그램 	농촌 빈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위기 전화상담 프로그램과 위기사 안전처를 제공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음.	단기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용하기에 어렵고 효과를 유지하기가 어려움 프로그램임.
Center for Family Life (CFL): 1978년에 뉴욕의 브록클린 지역에서 시작됨.	예방 및 치료	빈곤가정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와 방임을 줄임.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움. 가능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안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프로그램 직업교육과 훈련 장시간강프로그램 사회적 서비스 제공 보호관찰 프로그램 테크레이션 프로그램 	청소년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통하여 광고를 정확하게 함.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됨.	가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움.

2. 저소득층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Whalen과 Wynn(1995)이 밝혀냈듯이 빈곤층은 대부분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고, 구조적·기능적인 결함의 가족환경, 열악한 주거환경,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하는 소비경제환경, 학교부적응, 불건전한 친구환경 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을 가족환경, 주거환경, 소비환경, 신체적 건강에 관련된 식생활환경, 학교환경, 친구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가족환경

선행연구들은 빈곤 자체보다 빈곤과 가족환경이 상호작용할 때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Connell, Spencer와 Aber(1995)는 빈곤청소년들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는 경제적 조건보다 가족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의 수입과 부모의 폭력과 상관성이 있어 수입이 낮을수록 부모의 폭력이 높고, 빈곤 청소년들이 폭력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통제감이나 자기가치감에 관련성이 높아 어머니와 정서적 유대가 적은 빈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통제감과 관련성이 높아 아버지와 정서적 유대가 적을수록 청소년들은 일탈이나 비행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ampson과 Laub(1994)는 하류층 가정의 부모가 중상류층 가정의 부모보다 자녀에게 적대감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모의 적대감은 주로 부모의 우울, 결혼생활에서 오는 갈등이나 불화, 돈 문제에 대한 부모-청소년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것이다. 특히 부모가 우울하고 결혼생활의 불화가 높으면 청소년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이나 정신

적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빈곤이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특히 학대적이면서 비원조적인 부모는 빈곤과 더불어 사회적 원조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부모들 자체가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녀를 학대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높다. 많은 연구들은 공식적 비행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가 매우 높았고, 부모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거나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일탈행동의 발생 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조치나 환경이 부모의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과 차이가 있어 빈곤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소외감을 낳게 하고 더욱 큰 절망감을 갖게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저소득층 부모는 배우자 폭력에 접근할 위험성이 높고, 배우자의 알콜이나 마약남용, 범죄 등에 접할 기회가 더 높으며, 배우자를 일찍 상실할 기회가 높다. 이는 빈곤가정에서 자란 공식적 비행청소년의 대부분이 결손가족이나, 폭력이 만연한 가족, 부모가 알콜이나 마약에 중독된 가족환경을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빈곤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외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Dodge, Pettit, & Bates, 1995). 빈곤가정은 대부분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허용적이어서 자녀가 부모의 훈육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부모와 대화를 기피하거나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연화, 1998). 이에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 반면 부모는 너무 바쁘거나 자신의 문제에 고착되어 있어 자녀의 활동이나 행방 등 구체적인 생활모습에 대해 알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훈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무조건 야단치거나 감정적인 체벌로 폭력, 학대, 구타하여 청소년에게 일탈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가족환경을 빈곤청소년들이 갖는 위험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생활적용 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 청소년 자신이 건전한 가족체계를 형성할 원동력을 갖게 하여 가족환경을 보호요인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2) 주거환경

저소득층의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주거조건이 열악하므로 주거스트레스를 느껴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저소득층은 주택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규모의 협소에 따른 방수가 작아서 방 하나 당 거주인수가 많고 공동공간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주거과밀의 상태에 있기 쉽다. 주거과밀이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에 주는 영향으로는 대인매력과 이타주의 감소, 공격성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Fisher, Bell, & Baum, 1984, 배연옥, 1990 재인용), 주택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횟수가 적다는 것이다(Mitchell, 1971, 배연옥, 1990 재인용).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주거관련 변인들을 정상 집단과 범죄집단의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Glueck(지광준, 1992 재인용)은 거주기간의 장단이 범죄성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범죄소년의 가정은 정상소년의 가정보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지광준(1992)도 청소년을 범죄집단과 정상집단으로 나뉘었을 때 두 집단 간에 자가소유의 정도, 방 하나 당 사용인원, 거주지역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준상(1996)은 청소년의 일탈·비행 촉진 관련 요인들 중 주거환경과 관련된 요인들로 일인당 주거공간 소유제한(한방에 3인 이상), 주거지역의 불량성, 주거지역의 놀이터 부재, 상가지역에 위치한 가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Shaw와 Mckay(정문성, 1992 재인용)의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은 도시중심부의 중심상업지역 주변이 외곽지역보다 많았다. 비행 발생지역과 관계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는 물리적 쇠퇴가 일어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빈곤화되는 지역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 쇠퇴하는 지역은 사회해체가 이루어져서 청소년에 대한 통제를 약하게 하며, 통제의 약화는 비행집단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정문성(1992)도 유흥업소지역 청소년이 폭력과 성적 비행을 많이 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하기 보다는 주택을 둘러싼 거시적인 지역환경으로 본 경우가 더 많았다.

청소년의 주거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심리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심리적 자원이 스트레스의 강력한 중재자가 되어 스트레스를 조정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활성화하며 금전·인지적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은 특히 소유한 자원이 적은 저소득층 집단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숙재, 박인숙, 1992). 주거환경은 가구의 경제적 지표로서 청소년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심리적 자원의 강화와 사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주택이외의 주변환경을 탐색할 자유를 더 많이 향유하므로 청소년의 경제나 행동반경은 아동기보다 확대되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청소년 자신이 가입하는 집단에 따라 한 집단의 영역으로 표시해 놓은 단골음식점, 골목과 공공장소의 공간적 요소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므로(Ittelson, 1995) 공간적인 사회적 지원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저소득층 청소년의 주거환경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조절과 사회시설 이용에 대한 주거교육프로그램은 주거환경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다.

3) 소비환경

우리나라 대부분 청소년의 경제적 일상생활은 아르바이트 등 소득창출을 위한 활동은 거의 없으며 주로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부

모의 경제수준에 의존해서 부모가 주는 일정량의 용돈에 의해 소비활동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TV 영상매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구매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양한 물건에 대한 소유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좌절감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또한 소비욕구의 억제로부터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은 소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물건을 훔친다든가, 부모에게 거짓말하기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통해 소비욕구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최숙진, 1983). 1992년 대검찰청 소년비행 동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범죄자 99,196명 중 9.8%가 경제적 이유에서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유흥비충당동기 6.1%, 허영사치심동기 2.2%, 생활비충당동기 1.6%로 밝혀졌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p. 266).

또한 돈을 비롯한 물질을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주의 성향과 비싼 물품 혹은 유명상표의 물품을 소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일탈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크다는 선행연구(정영숙 외, 1999)에 기초하여 볼 때, 청소년의 소비와 관련된 문제행동은 어느 정도 바람직한 소비가치 교육 등을 통하여 완화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소비가치관, 소비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이들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 동안의 소비가치관을 비롯한 용돈관리 등의 소비자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의 소비생활을 모델로 혹은 용돈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생활교육이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가정은 이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곳이며, 이때 부모 특히 어머니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계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맞벌이 등으로 자녀의 소비자교육이 이루어

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경제교육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계의 청소년자녀에게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소비욕구의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권오관, 1994; 최철호, 1991)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계의 자녀들이 중소득층 이상 가계의 자녀에 비하여 소비자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특히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갖는 소비환경이 그들의 심리적, 행동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주어진 생활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생활적용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4) 식생활환경

McDonald(1992)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식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영양불균형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적응능력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청소년기까지 계속되어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어 우울증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아 비만에 걸릴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Elder et al., 1985).

Pollitt(1995)는 영양상태나 건강상태가 빈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빈곤층은 불균형적인 영양섭취의 경향이 높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남용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였다. 더욱이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열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영양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기도 쉽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부모의 음주나 흡연 환경에 접하는 기회가 많은 것이다. 최근 청소년 비행 가운데 음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약물남용을 술, 담배, 그 다음이 흡입제나 항정신성 약물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와같이 음주는 다른 약물(담배, 본드, 부탄가스, 마약)의 사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다른 약물을 섭취한 뒤의 음주행동은 그 이전보다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고, 일단 음주행동이 학습되면 평생동안 지속되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또한 음주를 일찍 시작할수록 음주량이 증가해서 음주 후유증으로 인한 수업결손이나 학력저하는 물론이고 폭력에 휩쓸리거나 건강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를 경험할 기회가 매우 높다.

청소년의 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역시 가족과 또래집단을 들 수 있다. 알콜중독 부모를 둔 자녀가 정상 음주자를 부모로 둔 자녀보다 알콜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알콜중독자의 자녀가 입양되어 정상음주를 하는 양부모 밑에서 성장하여도 알콜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가 알콜중독인 경우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가 알콜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모두 알콜 중독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강조해주고 있다(Sigvardsson et al., 1996). 또한 알코올중독 부모를 둔 자녀는 자긍심이 낮고 심리적으로 혼란상태에 있어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면서 내적으로는 무력감이나 불안이나 우울에 빠져들기 쉬워 알콜이나 마약남용으로 이어지기 쉽다(Pullen, 1997).

더욱이 빈곤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알콜을 포함한 약물의 사용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칙이나 태도를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 알콜이나 마약을 권유할 때 이에 휩쓸리기 쉽다. 일반적으로 알콜환경에서 자란 경우 친구들의 음주규범과 음주에 대한 기대, 실질적인 음주행동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Perkins & Berkowitz, 1986).

이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알콜이나 마약은 매우

위험한 환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의 청소년 프로그램에는 예방뿐 아니라 치료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적응 프로그램에 건강에 관련된 식생활환경을 포함시키는 일은 의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5) 학교환경

초기 청소년기의 이탈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학교환경 요인은 학습능력 변수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학교성적이며(Bruno & Adams, 1994), Dryfoos(1990)도 성적 자체가 다른 어떤 학교환경보다 이탈행동의 위험요소임을 밝혀 내고 있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적에 영향을 더 받으며 남학생이 한번 성적이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빈곤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정책의 최대목표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는데 있을 만큼 빈곤청소년들의 학업문제에 관해 역점을 두고 있어 미국의 청소년 프로그램에는 학습을 도와주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학교성적은 학교를 중도탈락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빈곤층의 아이들이나 부모로부터 원조나 격려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러한 아이들을 도와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Dryfoos, 1990). 이러한 학생들은 가족들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공할 기대가 매우 적으나 프로그램의 초기개입은 성공적이어서 적절한 초기 개입이 매우 필요한 환경이 학교환경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Sonenstein, Ku, Juffras, & Cohen, 1991). 더욱이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 규칙을 더 잘 지켜야 하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여러 가지 학습과정을 수행하면서 행동의 절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규제와 사회적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인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도중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학습의 기회가 그만큼 감소되는 것이다.

또한 빈곤청소년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 학교가 파한 후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형성할 경향이 높다. 그래서 학자들은 빈곤층의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난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인 관심을 가졌다. 기존의 프로그램 평가에서 학교가 파한 후의 학습보조 활동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방과후에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학업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같은 개인 레슨의 기회를 증가시켰으며, TV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으며, 부모의 감독없이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Posner & Vandell, 1995). 이에 따라 방과후 지도를 받는 청소년들은 좀 더 구조화된 방식으로 어른이나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증가되었고,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학업, 행동점수, 친구관계, 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학습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하여 청소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생활적응 프로그램에는 학교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 친구환경

청소년에게 친구환경은 매우 중요한 지지환경이다 (Hatup, 1996). 선행연구는 친밀한 친구관계가 없고, 친구관계 형성에 곤란을 느끼거나, 친구집단에 수용되지 않는 청소년은 정서적인 불안정성과 부정적인 성격형성, 그리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Oldenburg & Kerns, 1997). 저소득층 가족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부모가 생활을 통하여 자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나 애정이 부족하여 자녀들은 애정에 대한 결핍으로 친구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Lengua et al., 1992). 일탈이나 비행의 문제를 보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일반 청소년보다 친구가 더 많고, 친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최근 연구자들은 친구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소득층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어 선행연구는 위험한 친구와 관계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환경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교성적이 낮거나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잘못하는 청소년들은 점차 학교생활에서 고립되어 자신을 인정해주는 노는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고 무단결석이 잦아지게 되며, 가족문제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로 가출을 결심하게 된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처음에 친구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가출한 청소년들끼리의 하위문화에 휩쓸리게 되면서 비행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더욱 심리적·행동적으로 문제행동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해주고, 건강한 친구관계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 도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8곳의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후드뱅크 수혜자, 결연대상자, 공부방 이용자, 봉사활동참가자, 소년소녀가장 아파트 입주자 등)에 참가한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Elliot와 Wilson(1996)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표집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주변환경 접근법인 사회복지기관 이용자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21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은 73.7%), 총 221부의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45부를 제외한 총 176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다른 연구보다 회수율이 낮고 부실한 응답설문지 수가 많은 이유는 학교를 통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는 주로 중학생이 응답한 것으로 한글해독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2. 측정도구

1) 생활환경 스트레스 (위험요인)

빈곤청소년들이 갖는 위험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생활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개념화하여 총 34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불만이 전혀없다의 1점에서 불만이 아주 많다의 4점)로 측정하였다. 가족스트레스는 McCubbin과 Patterson(1987)이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A-FILI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선행연구(Ittelson, 1995; Berardo, 1974)에서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충족되어야 할 공간요구도, 주택규모, 개인공간, 화장실이용, 설비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소비환경 스트레스는 청소년 자신이 꼭 필요한 물품, 친구가 가지고 있거나 혹은 대중매체 등의 광고에 나오는 물품 등을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비롯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식생활스트레스는 음주, 흡연,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욕구로 구성하였다.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성적,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측정하였다(강정구, 1986).

2) 생활환경자원(보호요인)

빈곤청소년들이 갖는 보호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환경자원에 대한 인식도로 평가하였다. 총 6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로 측정하였다. 가족자원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애정이나 부모-자녀간의 관계로 측정하였다(Sim & Vuchinich, 1996). 주거자원 인식은 청소년에 대한 주거의식에 대한 김희정(199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측정하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생활가치관을 측정하는 내용과 실제 청소년이 갖고 있

는 경제자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평가하였다. 식생활자원은 편식, 음주, 흡연, 과식·폭식, 인스턴트 식품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학교자원은 강정구(1986)의 연구를 참조하여 학교에 대한 가치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친구자원은 Sharabany's Intimacy Scale(Sharabany et al., 1981)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친구와의 애정적 관계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거나 규범을 지킬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3) 심리적 적응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평가는 청소년의 적응행동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불안증, 공격성, 우울증, 대인관계, 신체화문제 등을 평가하는데 주로 쓰이는 SCR-R-90(Derogatis et al., 1976)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총 32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화하여 측정하였고(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4) 행동적 적응

청소년의 비사회적 행동특성은 Simons, Johnson과 Cogner(1994)가 청소년을 연구하는데 사용하였던 행동척도를 수정보완한 후 평가하였다. 지난 1달 동안 어느 정도 비사회적 행동을 하였는가를 측정하는 1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화(1점은 전혀 없다, 5점은 10번 이상)하여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모두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상관관계,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으로 이루어졌다.

〈표 2〉 각 변인에 따른 측정도구

변 인	하위변인	문항수	Cronbach' α	변 인	하위변인	문항수	Cronbach' α
생활환경 스트레스	가 족	11	.76	생활환경 자 원	가 족	13	.80
	주 거	4	.85		주 거	9	.69
	소 비	4	.85		식생활	5	.54
	식생활	5	.72		소 비	15	.69
	학 교	5	.60		학 교	5	.60
	친 구	5	.63		친 구	7	.61
	전 체	34	.91		전 체	60	.88
심리적 적응		32	.93	행동적 적응		16	.88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환경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이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영숙 외, 199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고, 부모에 대한 질문에 결측값이 많아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양친이 모두 있는 청소년이 64.5%이었고, 편부는 4.1%, 편모는 16.6%, 부모가 모두 없는 청소년도 14.8%나 되어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청소년은 학업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이 시간활용문제, 성격문제, 친구문제, 가족문제로 들고 있다. 가정의 문화시설구비에서는 10명을 제외하고는 TV를 모두 구비하고 있었고, 청소년 잡지나 컴퓨터에 대한 구비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생활환경의 특성을 간략히 조사한 결과는 다음 내용과 같다. 가족환경은 전체 176명의 청소년 중 부모가 이혼한 청소년들은 16명(9.1%)이었고, 가난이 가족의 문제라고 여긴 청소년은 30명(17%), 아버지가 실직한 경우는 20명(11%), 부모가 자녀에게 늘 야단치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42명(24%),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이 36명(20%), 부모가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19명(11%),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45명(26%)이었다.

주거환경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이 사는 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67.6%로 가장 많아서 일반주택지역에 다수가 거주하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구임대 아파트단지거주도 17.6%나 되어 유사한 저소득 계층과 거주하는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52.5%이어서 1995년 청주시 자가율 52.5%(청주시, 1998)과 같다. 주택당 가구수는 1가구 거주는 77.3%이며 2가구 이상 거주는 22.7%로 '95 인구주택 총조사의 시부 1가구 거주비율 77.0%와 유사하나(통계청, 1997), 2가구 중에서 화장실이나 부엌을 공동 사용하는 가구는 10호로 주거 불만족 상태일 수 있다. 방수는 2개가 58.0%로 가장 많았으며 방 3개는 26.7%로 평균 2.4개이었다. 이것은 '95 인구주택 총조사의 시부 주택 당 평균 방수 3.1개(통계청, 199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거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낮은 주거수준은 청소년에게 주거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개인영역과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인방은 혼자 쓰는 경우가 52.3%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경우 한방 사용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가 40.8%로 심한 주거 과밀로 청소년의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배연옥, 1990)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용돈수준은 평균 18,000원으

〈표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	남학생	110(62.5)	학교	중학교	114(65.1)				
	여학생	66(37.5)		고등학교	61(34.9)				
	계	176(100.0)		계	175(100.0)				
부학력	초졸 이하	20(14.3)	모학력	초졸 이하	21(15.0)				
	중졸 이하	32(22.9)		중졸 이하	43(30.7)				
	고 졸	64(45.7)		고 졸	64(49.3)				
	대졸 이상	24(17.1)		대졸 이상	7(5.0)				
	계	140(100.0)		계	135(100.0)				
부직업	단순 노동 및 무직	8(7.1)	모직업	단순 노동 및 무직	11(9.3)				
	농 업	7(6.3)		농 업	3(2.5)				
	상업, 자영업	20(17.9)		상업, 자영업	13(11.0)				
	공 업	7(6.3)		공 업	9(7.6)				
	서비스	26(23.2)		서비스	22(18.6)				
	사무직, 공무원	18(16.1)		사무직, 공무원	5(4.2)				
	5급이상 관리직	14(12.5)		기술직	4(3.4)				
	기술직	12(10.7)		가 사	51(43.2)				
계	112(100.0)	계	118(100.0)						
종교	기독교	64(36.8)	부모 존재 유무	양친 모두 계심	109(64.5)				
	천주교	24(13.8)		아버지만 계심	7(4.1)				
	불 교	31(17.8)		어머니만 계심	28(16.6)				
	무	55(31.6)		두 분 모두 안 계심	25(14.8)				
	계	174(100.0)		계	169(100.0)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	1명	9(5.1)	한달 평균 용돈	10,000원 이하	63(41.7)				
	2명	17(9.7)		10,000원~25,000원	56(37.1)				
	3명	32(18.3)		26,000원~40,000원	23(15.2)				
	4명	77(44.0)		41,000원 이상	9(6.0)				
	5명	22(12.6)		계	151(100.0)				
	6명	16(9.1)							
	7명	2(1.1)							
	계	175(100.0)							
자신의 개선 해야 할 문제	구분	유	무	계	가정의 문화 시설 구비 유무	구분	유	무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가족문제	22(12.5)	154(87.5)	176(100.0)		TV	166(94.3)	10(5.7)	176(100.0)
	친구문제	25(14.2)	151(85.8)	176(100.0)		오디오 세트	80(45.5)	96(54.5)	176(100.0)
	시간활용문제	91(51.7)	85(48.3)	176(100.0)		컴퓨터	43(24.4)	133(75.6)	176(100.0)
	학업문제	100(56.8)	76(43.2)	176(100.0)		신문	74(42.0)	102(58.0)	176(100.0)
	성격문제	45(25.6)	131(74.4)	176(100.0)		비디오	110(62.5)	66(37.5)	176(100.0)
				청소년 잡지	29(16.5)	147(83.5)	176(100.0)		

로 나타났으며, 90.1%가 3만원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서정희·석봉화, 1998)에서 3만원 이하가 51.4%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대상자의 용돈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은 39.4%(67명)로 나타나 서정희와 석봉화

(1998)의 69.9%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일탈행위의 대표적인 음주와 흡연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자의 80.7%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주를 하는 경우는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37.1%)와 기분이 좋거나 축하할 일이 생길 때 (13.5%)로 나타났으며, 술을 마시는 경우 한 병 이하(81.0%)의 음주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82.2%가 흡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흡연을 하는 경우 하루에 2개에서 5개 정도의 흡연량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환경 특성은 다른 연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생활환경 자체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

사해 주고 있다.

2. 생활환경 스트레스와 생활환경 자원의 특성

저소득층 청소년이 갖는 생활환경 스트레스와 자원의 특성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저소득층 청소년은 소비환경(평균=1.72)과 학교환경(평균=1.70)에서 스트레스를 다른 환경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은 친구자원을 가장 큰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평균=3.20), 학교환경을 가장 낮은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어(평균=2.69)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자원을 자원으로 보기보다는 스트레스 원으로 보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각 환경스트레스는 주거스트레스만을 제외하고 각 생활환경 자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표 4>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외 변인 특성

	가족 스트레스	주거 스트레스	소비 스트레스	식생활 스트레스	학교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가족자원	주거자원	소비자원	식생활 자원	학교자원	친구자원	심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
가족 스트레스														
주거 스트레스	.37**													
소비 스트레스	.39**	.52**												
식생활 스트레스	.39**	.58**	.53**											
학교 스트레스	.26**	.29**	.42**	.35**										
친구 스트레스	.33**	.28**	.47**	.38**	.38**									
가족자원	-.31**	-.18*	-.29**	-.29**	-.11	-.31**								
주거자원	-.02	-.09	-.05	-.09	-.16*	-.10	.40							
소비자원	-.13	-.27**	-.28**	-.30**	-.14	-.21**	.39**	.51**						
식생활자원	-.16*	-.11	-.13	-.23**	-.08	-.08	.38**	-.23**	.26**					
학교자원	-.05	-.12	-.26**	-.21**	-.20**	-.23**	.29**	.24**	.24**	.18*				
친구자원	-.08	-.12	-.16*	-.18*	-.16*	-.27**	.25**	.29**	.38**	.30**	.28**			
심리적적응	.25**	.23**	.36**	.33**	.34**	.36**	-.35*	-.30**	-.36**	-.32**	-.36**	-.30**		
행동적적응	.12	.07	.18*	.27**	.04	.16*	-.40**	-.26**	-.24**	-.32**	-.38**	-.23**	.32**	
평균	1.39	1.28	1.72	1.32	1.70	1.23	2.75	2.93	2.83	2.89	2.69	3.20		
표준편차	.42	.47	.73	.45	.60	.37	.51	.53	.38	.57	.68	.44		

보이고 있어 생활환경 자체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고 보호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의 상관계수는 -.31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은 선행연구에 나타난바와 같이(Hatup, 1996; Oldenburg & Kerns, 1997) 친구를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을 가장 낮은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자원과 학교자원이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

3. 생활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1) 생활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주거, 소비, 식생활, 학교, 친구와 같은 생활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환경만을 표에 제시하였다. 생활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 스트레스($\beta=26$, $**p<.01$)와 식생활 스트레스($\beta=24$, $*p<.05$)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17%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친구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식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환경보다 친구관계나 친구들의 압박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 등과 같은 것을 원하는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정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일수록 친구환경과 음주·흡연과 같은 약물중독이 위험요소가 되어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친구환경과 식생활환경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생활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생활환경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행동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되기보다는 심리적인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와 친구관계를 형성하여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빈곤층이 모여 사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교육하여 건강한 청소년 집단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안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알코올이나 마약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히 운영되어야 함을

<표 5> 생활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표준오차	Adj-R ²	F
심리적 적응	친구 스트레스	.26**	.13	.17	16.96***
	식생활 스트레스	.24*	.06		

***p<.001 **p<.01 *p<.05

시사해 주고 있다.

4. 생활환경 자원이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1) 생활환경 자원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주거, 소비, 식생활, 학교, 친구와 같은 생활환경 자원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환경만을 표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생활환경 자원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자원 인식($\beta = -.25$, $**p < .01$), 소비자원 인식($\beta = -.23$, $*p < .05$), 식사 자원 인식($\beta = -.19$, $*p < .05$)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20%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학교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소비자원 인식이 높을수록, 식사자원의 인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미국의 청소년 정책이 고등학교를 마치게 하는데 있

는 것과 같이 학교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는 결과이다. 소비자원 인식이 심리적 적응에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은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들이 구입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억제하여야 하는 데서 비롯된 심리적 좌절감 혹은 친구와의 비교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2) 생활환경 자원이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원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자원 인식($\beta = -.29$, $**p < .01$), 식사자원 인식($\beta = -.23$, $*p < .05$), 가족자원($\beta = -.23$, $**p < .01$)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을 27%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학교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식사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문제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 행동은 가족환경이 원인이 되어 학교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소년의 음주·흡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

<표 6> 생활환경 자원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표준오차	Adj-R ²	F
심리적 적응	학교자원	-.25**	.07	.20	9.99***
	소비자원	-.23*	.13		
	식생활자원	-.19*	.08		

***p<.001 **p<.01 *p<.05

<표 7> 생활환경 자원이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표준오차	Adj-R ²	F
행동적 적응	학교자원	-.29**	.05	.27	14.29***
	식생활자원	-.23*	.06		
	가족자원	-.23*	.08		

***p<.001 **p<.01 *p<.05

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가족, 학교, 음주·흡연 등이 상호작용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학적 접근방식의 프로그램 분석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특성을 조사해보고, 이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살펴본다. 이 두 요인의 특성을 알아보면, 이 두 요인이 각각 청소년들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주거스트레스만을 제외하고 생활환경 스트레스는 각각의 생활환경 자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어 생활환경 자체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고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저소득층 청소년은 소비환경과 학교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다른 환경보다 많이 받고 있어 이 두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 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3) 청소년은 친구자원을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을 가장 낮은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자원과 학교자원이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환경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4) 청소년은 친구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식생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환경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 5) 학교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소비자원 인식이 높을수록, 식사자원의 인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적었다. 또한 학교

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식사 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족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행동적 적응의 문제가 적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가족환경은 청소년에게 보호요인으로 인식되어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가족환경 요인을 보호요인으로 간주하여 가족생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족생활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가족형태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시켜 자신이 처해 있는 가족의 장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족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개발과 대처방안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가족환경이 청소년에게 보호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일탈행동에 빠질 위험이 크므로 저소득층 청소년이 보호적인 가족환경을 가지지 못할 때 결연가족이나 자매결연과 같은 형태로 인위적인 가족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 2) 저소득층 청소년의 주거수준은 일반가구에 비해 낮으나 주거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스트레스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주거자원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원과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주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는 소비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가시켜 청소년의 내적 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이나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주거는 가족의 휴식처이며, 관리를 잘 하면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고 개인방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역내 복지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3) 소비생활로부터 비롯된 스트레스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전혀 영향을 미

- 치지 않는 반면, 소비자원은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탈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주어진 소비생활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삶의 가치를 지나치게 물질에 두지 않도록 하며 바람직한 소비가치와 계획적인 소비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경제적 빈곤함에 대한 불만을 갖기 쉽고 잘 사는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갖기 쉬운 위화감을 줄여 주며, 주어진 생활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야말로 주어진 생활환경에 적응하여 환경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시발점과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빈곤으로부터 올 수 있는 심리적·행동적 결핍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4) 청소년은 원하는 만큼의 알코올, 흡연,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를 가져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한 알코올, 흡연, 인스턴트 식품 섭취의 욕구 수준이 낮으면 청소년은 이를 자신의 보호요인으로 여겨 행동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이는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알코올이나 흡연, 마약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교육내용도 필요하지만 균형식사를 취하는 방법이나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교육내용도 필요하다.
 - 5) 청소년은 역시 학교환경의 스트레스 수준이 제일 높았고, 이 환경요인은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위협요인이 될 뿐아니라 보호요인이 됨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학교 안이나 기관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6) 저소득층 청소년은 친구환경은 위협요인이라기 보다 자신에게 가장 큰 자원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친구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내적발달에 친구환경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성인과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육 내용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서로에게 건전한 친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교육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주로 친구들이 노는 친구들이고, 알코올이나 마약등을 강요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강정구(1986).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권오관(1994). 중·고등학생의 경제의식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희정(1990). 청소년의 '집'에 대한 개념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문숙재·곽인숙(1992). 주거환경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159-175.
- 5) 배연옥(1990). 주거과밀이 청소년의 사회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백연화(1998). 가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서정희·석봉화(1998).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와 소비지향적 태도가 과소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131-144.
- 8) 정문성(1992). 거주환경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연구. 청소년 연구, 제8호, 78-102.
- 9) 정영숙·김영희·박경옥·이희숙·채정현·이종섭(1999). 청소년과 생활환경: 생활환경이 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175-197.
- 10) 진명희, 오익수, 김진희(1996). 청소년 비행화과정 연구. 청소년 연구, 91-113.

- 11) 최숙진(1983). TV 광고가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최철호(1991). 청소년의 소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통계청(1997). 생활속의 통계.
- 14)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가정지도 편람. 인간과 복지.
- 15)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 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청소년의 비행화 연구.
- 18) 한준상(1996). 청소년문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19) Berardo, F. M.(1974). Marital invisibility and family privacy. EDRA(Environent Design Research Association), 5(3), 55-71.
- 20) Bowditch, C. (1993). Getting rid of troublemakers: High school disciplinary procedures and the production of dropouts. *Social Problems*, 40, 493-509.
- 21)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22) Bruno, R.R., & Adams, A.(1994). Current population reports, population characteristics, school enrollment-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students: October 1993, P20-479.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 23) Butt, M. R., Resnick, G., & Novick, E. R.(1998). Building supportive communities for at-risk adolescents:
- 24) Connell, P. J., Spencer, B.M., & Aber, L. J.(1995).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s,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1), 493-506.
- 25) Derogatis, L., Lipman, R., Uhlenhuth, E., & Coti, L.(1976). The Hopkins Symtoms Checklist (HSCL): A self report symptom inventory. *Behavioral Science*, 19, 1-13.
- 26) Dodge, A. K., Pettit, S. G., & Bates, E. J.(1995). Socialization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conduct problems. *Child Development*, 65(1), 649-665.
- 27) Dryfoos, J. G.(1990). *Adolescent at ris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8) Elder, G. H. (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29) Elliot, D., & Wilson, W.(1996). The effects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on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 389-426.
- 30) Huston, C. A., McLoyd, C. V., & Coll, G. C.(1994). Children and poverty: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1), 275-282.
- 31) Ittelson(1995). *환경심리학*. 윤홍섭역, 성원사.
- 32) Lengua, L. J., Roosa, M. W., Schupak-Neuberg, E., Michaels, M. L., Berg, C. N., & Weschler, L. F. (1992). Using focus groups to guide the development of a parenting program for difficult-to-reach, high-risk families. *Family Relations*, 41, 163-168.
- 33) McCubbin, H. L., & Patterson, J. M.(1987). A-FILE. In H. I., McCubbin, & A. I. Thompson,(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ress.
- 34) McDonald, M.A. (1992). Playground behaviors of school-age children in relation to nutrition, school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88-1195.
- 35) Perkins, H.W., & Berkowitz, A.D.(1986). Perceiving the community norms of alcohol use among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1, 961-976.
- 36) Pollitt, E.(1994).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Relevance of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Child Development*, 65(1), 283-295.

- 37) Posner, J. K., & Vandell, D. L.(1995).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38) Pullen, L.(1996). The relationship among alcohol abuse in college students and selected psychological/demographic variabl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6-49.
- 39) Sampson, R. J., & Laub, J. H. (1994).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relevance of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Child Development*, 65(1), 283-295
- 40) Sampson, R. J., &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41) Seidman, E., & Aber, J.L.(1999). The risk and protective functions of perceived family and peer microsystems among urban adolescents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211-237.
- 42)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E.(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 43) Sigvardsson, S., Bohman, M., & Cloninger, K.(1996). Replication of stockholm adoption study of alcoholism. *Arch Gen Psychiatry*, 53, 681-687.
- 44) Simon, R. L., Johnson, C., & Cogner, R. D.(1994). Harsh corporal punishment versus quality of parental involvement as an explanation of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91-607.
- 45) Sonenstein, F.L., Ku, L., Juffras, J., & Cohen, B.(1991). Promising prevention programs for children. Alexandria, VA: United Way of America.
- 46) Wagner, M., & Golan, S.(1996). California's Healthy Start school-linked services initiatives: Summary of evaluation findings. Menlo Park, CA: SRI International
- 47) Whalen, S. P., & Wynn, J. R. (1995). Enhancing primary services for youth through an infrastructure of social services. Special Issue: Creating supportive communities for adolescent development: Challenges to schola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0(1), 88-110.
- 48) Yoshikawa, H.(1995). Long-term outcomes of early childhood programs on social outcomes and delinquency. *The Future of Children*, 5(3), 51-75.